



“당신들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 주시오.”

오늘은 전교 주일이며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전교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의 일화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여 식민통치를 할 때 간디는 비폭력 평화운동을 하면서 인도의 독립을 위해 일했습니다. 영국군의 횡포는 심해졌습니다. 간디의 명성이 인도 전역에 널리 퍼지자 영국군은 간디를 잡아넣어야겠다고 음모를 꾸미고 영국군 장성들 모임에 간디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트집을 잡으려고 간디에게 한마디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디는 맨 발에 적삼 하나만 걸치고 연단에 올라가 영국군 장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달린 교회를 짓는데,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건물이 나 선전 벽보가 아니라 당신들의 삶으로 예수를 보여 주시오.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부당하게 폭력을 휘두르며 살인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당신들의 예수가 나약한 여인들을 겁탈하라고 가르쳤습니까? 가난한 이들의 재산을 약탈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내 조국 인도를 그냥 놓아두시오! 당신들의 예수가 아니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녀 마더 테레사가 계셨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아무 말 없이 가장 가난한 도시 캘커타의 빈민가에 들어가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교회도 짓지 않고, 십자가도 세우지 않고, 벽보도 붙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였습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느님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전교입니다. 하느님의 삶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것을 사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면서 하느님의 삶을 살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 전교의 힘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보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전교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마태 5,14-16)



최태식 필립보 신부 | 삼계본당 주임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이사 21-5
화 답 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제 2 독 서	로마 10,9-18
복 음	마태 28,16-20

주교회의 2023년 추계 정기총회 결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10월 9일(월)부터 11일(수)까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추계 정기총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가 마련한 “한국 천주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사목 백서”(이하 ‘사목 백서’)를 승인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직간접적 영향과 그에 따른 사목 실천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천주교회의 사목 과제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사목 백서에는 사목 주제별(사회, 종교, 의료, 수도회, 전례, 청소년·청년, 생태, 신학·사목)

전망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살아가는 교회를 위한 사목 제안이 수록되었다.

- 서울대교구 제11대 교구장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시복을 서울대교구에서 추진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 참조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제97차 전교 주일(10월 22일) 담화(요약문)

타오르는 마음, 움직이는 두 발(루카 24,13-35 참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해 전교 주일을 위하여 저는 루카 복음서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루카 24,13-35 참조)에서 영감을 받아 ‘타오르는 마음, 움직이는 두 발’을 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이해 주시는 것을 들었을 때에 속에서 마음이 타올랐고, 그분을 알아보았을 때에 눈이 열렸으며, 마침내 두 발을 떼어 길을 떠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루카 24,27) 제자들이 나중에 서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 마음이 타오르도록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살아 있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 주시고 변화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길으신 우리의 모후, 그리스도의 선교하는 제자들의 어머니, 선교의 모후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http://cathms.kr/>) 참조 바랍니다.

진동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미사



진동본당(주임: 조정제 오딜론 신부)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미사가 10월 15일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 주례로 거행되었다. 이날 미사에는 진동본당 역대 사제를 비롯하여 교구 사제 및 수도원 사제, 수도자, 신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감사미사를 봉헌하였다. 미사 봉헌 후 전 신자가 점심을 함께 나누었다. 신은근 신부는 강론을 통하여 “본당 설립은 30년이지만 공소 시절 이전 최양업 신부님의 시기에 이미 교우촌을 형성하여 신앙을 지켜온 선조들을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전하였다. 그리고 조정제 신부는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친필 축하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며 더욱더 큰 축하의 기쁨을 나누었다.

캄보디아 포이펫 돈보스코학교와 지진과 홍수로 고통을 받는 모로코와 리비아 국민들을 위해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천주교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종록 대건 안드레아)와 루멘회(회장: 박수현 바오로)에서는 '복음을 살아 있게 하고 복음을 통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그리고 이주민들을 위하여 새로운 방향을 향해'가기 위해 지난 해부터 아시아지역의 소외된 아동을 위한 기도와 함께 국제 연대활동을 진행하였다.

올해는 평협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조정혜 로사)에서 캄보디아 포이펫 돈보스코학교 내의 600여 명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듣고 아동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원 물품과 모금 활동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75개 본당(공소 2개)과 174명의 개인이 참여하여 1,000kg이 넘는 후원물품(후시딘, 생리대 등)을 컨테이너에 실어 지난 8월 24일 캄보디아를 향해 출발하였다.

후원금은 캄보디아 포이펫 돈보스코 아동들의 식수난이 심각하여 '상수도 인입'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다가올 11월 30일에는 돈보스코학교에서 교구 경제인 모임인 루멘회와 치과의사들이 함께 축복식과 돈보스코 학생들의 치아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진과 홍수로 고통받는 모로코와 리비아 국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금도 한국천주교주교회의를 통하여 전달될 예정이다.



■ 후원 현황

참여 대상	물품 현황			후원금 현황
75개 본당 2개 공소 - 복지 기관	칫솔, 치약	16Box	392kg	①개인-신 마가렛 외 173명: 17,860,000원
	약품 (마데카솔 등)	5Box	88kg	②본당-거창성당 외 10개: 10,091,860원
	생리대	43Box	43kg	③평협: 2,048,140원
	계	64Box	810kg	④루멘회: 15,000,000원
				총 계: 45,000,000원

■ 수입 · 지출 내역

사업명	수 입		지 출	
	내 용	금 액	내 용	금 액
- 캄보디아 포이펫 돈보스코학교 - 모로코 지원 - 리비아 지원	개인 174명	17,860,000원	▶인천 탁송 운송비	220,000원
	본당 11개	10,091,860원	▶인쇄비(포스터)	240,000원
	평 협	2,048,140원	▶상수도 연결공사(평협)	10,000,000원
	루멘회	15,000,000원	▶상수도 연결공사(루멘회)	15,000,000원
			▶캄보디아 운송비	3,000,000원
			▶모로코 긴급 지원	5,000,000원
	계	45,000,000원	▶리비아 긴급 지원	5,000,000원
			▶예비비	6,540,000원
			계	45,000,000원

교구 농아선교회 장재동본당 방문



10월 8일 장재동본당(주임: 임해원 안토니오 신부) 85주년 본당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농아선교회가 본당을 방문하였다. 농아인들은 수어미사 후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고 이어진 율놀이에서 2위에 오르는 기쁨을 누렸다. 참석자들은 초대해 준 임해원 신부와 반갑게 맞이해 준 본당 신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생태영성 탄소중립 아카데미

교구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탄소중립실천 사업을 지원받아 '생태영성 탄소중립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합니다.

회칙 「찬미 받으소서」 7년 여정 실천사업

·일시: 10월 28일(토) 13:00~17:30

·장소: 교구청

·대상: 교구 신자 누구나

·내용: 제1강의-‘생태영성’

강사: 강영구 루치오 신부(교구 성사전담 사제)

제2강의-‘탄소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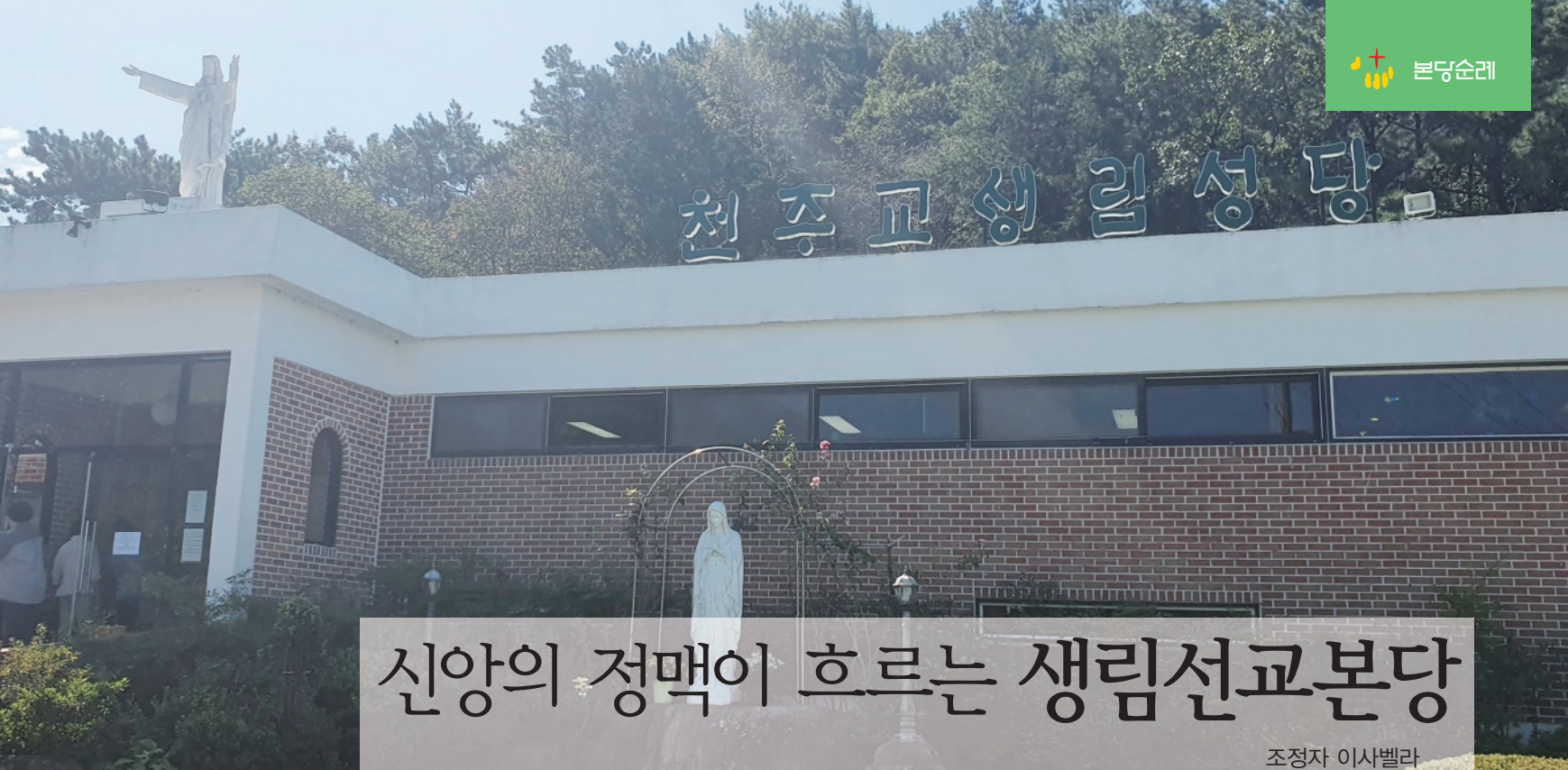
강사: 강석중 요한 보스코 교수(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명예교수)

제3강의-‘탄소중립실천사례’

강사: 윤체영 마리안나(생태환경 강사)

·문의: 교구 평협 055·249·7114, 010·9321·9682





신앙의 정맥이 흐르는 생림선교본당

조정자 이사벨라



성전 입구에 오이가 담긴 노란 바구니가 놓여 있다. 오이 농사를 짓는 신자가 상품이 안 되는 못생긴 오이를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라고 갖다 놓았다. 미사를 마치고 신자들이 돌아간 뒤에 바구니는 비었다. 농사꾼에게 굶은 오이는 아픈 자식이고 가져가는 사람은 그 생명을 거두는 마음이라,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는 생림선교성당 신자들의 인정이 이 못난 오이에서 묻어난다.

미사의 목마름

성전에 들어서면 주보성인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의 액자가 첫 눈에 들어온다. 십자고상 위로는 천장을 통해 들어온 채광이 예수님을 흰하게 비추고 제대 바닥은 아직도 붉은 카펫이다. 좌우 창은 벽체 위와 아래로 배치해 아래의 좁은 창으로는 땅, 위 창은 하늘만 보이게 하여 기도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는 차단해 놓았고 좌우 벽면에 14처는 모티브만 묘사했다. 미사 시간 20분 전, 올 신자는 거의 다 온 모양이다. 사제는 성전에 들러 미사 전 상황을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사무장과 마지막 점검을 한다. 수녀와 복사가 없는 시골 본당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장면이다. 신자들은 생활의 중심을 미사 시간에 맞추어 놓았다. 그래서인지 너무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미사 시간을 앞당겼다. 공소 시절에 한 달에 한 번씩 영성체를 모시다가 그런 기쁨을 매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1900년경 밀양성당을 모 본당으로 봉림공소로 설립, 1948년 수해로 유실되어 이기훈 공소회장의 자택을 임시공소로 사용하였다. 1980년 밀양성당에서 진영성당으로 관할 변경이 되면서 현 부지를 매입해 봉림공소로 축성식을 한 뒤 2004년 생림공소로 개명하였다. 2009년 사제관 축복식을 주례한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는 신자들이 매일 영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인근 한림공소와 통합하여 생림선교본당으로 승격했다. 이리하여 70년 가까운 공소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모 본당에서 분리되어 전통과 자원을 지원받아 탄생한 성당에 비해 생림선교본당은 처음부터 공소로 시작해 마지막에는 공소끼리 합치다 보니 미사 예절을 제대로 배운 신자가 없었고 두 공소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적잖은 혼란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미사가 화합의 축이 되었다고 한다.

선교할 대상이 없습니다, 주님!

농경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되면서 푸른 들녘이 회색 콘크리트로 바뀌고 거대한 축사가 군데군데 들어서다 보니 1년에 수백 명씩 이곳을 떠난다. 이런 환경에서 선교하기란 매우 어렵다. 신자들은 기도하면서 방법을 모색해 보지만, 사람이 없다. 유아와 유치부, 초등부는 물론이고 중등부의 발길이 사라진 지도 오래다.

그리하여 냉담자를 돌아오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신자들은 자신의 매무새부터 다잡았다. 성당 다니면서 왜 저러나 하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였다. 각자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표정 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김유도 마티아는 27세에 세례를 받아 공소 생활만 50년, 본당으로 승격한 기간까지 합치면 근 60년을 여기서 보냈다. 때로는 동아줄로 주님과 탄탄하게 연결되었다가 어느새 작은 새끼줄처럼 끊어지기를 반복하며 영육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지금이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편안하다며 그 이유를 곁에 있는 신자들을 꼽았다. 박선자 올리아나의 부친은 이제 고인이 되었지만 공소 회장직만 30여 년을 하였다.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는 사제가 주무실 방에 군불을 넣어 따뜻하게 데워 놓던 추억을 떠올렸다. 최미자 베레나는 한림초등학교를 다닐 때 바로 옆 성당에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듣고 자랐다. 그 메아리가 고여 있다가 결혼 후 촉발해 세례를 받았다. 이후로 눈이 밝아지고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그 고마움을 신자들의 기도로 돌렸다. 지난해에는 남편도 세례를 받았다. 김영두 스테파노 사목회장은 시종일관 신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다가 이렇게 화합이 잘 되는 이유는 영성체를 할 수 있다는 기쁨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권오승 미카엘 부회장, 김형우 요한 총무, 손부미 아네스 교육분과장, 손병임 루시아 여성부회장도 자리를 같이했다. 최근에 손병임 루시아의 아들이 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해 엘리트의 면모를 갖추고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았으며, 새 생명도 태어났다. 손병임의 아들딸과 손자 네 명이 이 본당 공동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없지만 언제나 있게 해 주시는 주님, 신자들은 이 신비를 굳게 믿었다. 故 이강해 스테파노 신부, 박상흠 다미아노 베오나페 꼬미나또 신부, 베네딕토 수도회 김기룡 스테파노 수사, 박능호 분도 수사, 권은총 마태오 수사를 비롯해 연령회장의 딸 김정향 미셀 수녀가 생림선교본당 출신이다.

성당에 숨이 들어오다

한림은 세조가 단종을 유배시키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정자를 짓고 도리와 학문에 매진한 김계희 한림학사의 선비 정신에서 기반하였다면, 생림은 안양천을 따라 농사를 지으며 습득한 생명존중과 자연을 기반으로 생태를 중시해 왔다. 양태현 그레고리오 주임 신부는 이들의 차이점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여기서 파생한 문화로 해석, 어느 한쪽도 기울지 않게 안배해 섬겼다. 그 온기가 닿아서인지 신자들은 스스로 빗장을 열었다. 코드가 맞았다. 그리고 나아갔다. 그 걸음이 경쾌하다. 순교자 성월에는 승합차를 타고 명례성지에서 김경희 수녀의 '순교자님들의 믿음을 본받아!' 특강을 듣고 음악회와 순교자의 밤 행사에도 다녀왔다. 사제는 더운 여름에도 긴 수단을 입고 외출을 했다. '신부님이 수단을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슬쩍 흘린 어느 신자의 한마디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림공소에 베트남에서 온 젊은 노동자들이 오기 시작했다. 성당에 숨이 들어온다. 시설부장이 손수 제작한 그네의자에는 햇살이 그득하다.



교구/본당

교구 성경교육봉사자 교안발표

일시: 10월 24일(화) 14:00/ 장소: 교구청

제8차 본당양업22 실습 교육

일시: 10월 26일(목) 10:00/ 장소: 교구청

교구 전례꽃꽂이회 आय회

일시: 10월 26일(목) 10:30~15:30

장소: 함안 구읍공소

참가비: 1인 1만 원/ 준비물: 운동화, 물

문의: 회장 010-9286-4493(손복희 루피나)

신학생 부모피정

일시: 10월 28일(토)~29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위원회/기관/단체

도박문제로 힘드십니까?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매(주일) 17:00/ 장소: 월남동성당

문의: 010-9992-3443(Mr.정)

기 타

주일학교 교사 및 자모회, 복사단과 졸업 피정

장소: 평생교육원 젊음의 집

대상: 교리교사, 자모회, 복사단,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

문의: 055-255-8295, 010-7661-3832

▶피정 일정은 조율 후 수시 진행되오니 문의 바랍니다.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과 학술 연구비 2024년

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분: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 10월 14일(토)~12월 14일(목)까지, 일반

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kr) 접수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02-460-7533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제26회 학술발표회

주제-새로운 만남: 다름의 공존

일시: 11월 9일(목) 10:00~17:00

장소: 광주가톨릭대학교(남평)

주최: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광주인권평화재단

문의: 061-339-2231(연구소)/061-337-2181(대학본부)
▶참가하실 분들은 10월 31일(화)까지 유선으로 접수하시
기 바랍니다.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 희랍어: zoom강의)

일시: 수-19:30~21:30 또는 목-10:00~12:00

기간: 2024년 1월부터 1년간/ 회비: 3개월에 30만 원

문의: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010-4598-691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교구 2024학년도 유치원 신입 원아 모집

교구 내 유치원 신입 원아모집에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입학상담: 10월~11월

대상: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유아

■입학설명회

●성미유치원(교현성당)-10월 30일(월) 17:00

문의: 055-636-4288

●소화유치원(문산성당)-전화문의 및 수시상담

문의: 055-761-8755

●성심유치원(중앙동성당)-10월 25일(수)-26일(목) 11:00/ 14:00

문의: 055-547-7187

●성모유치원(명서동성당) 10월 23일(월)~26일(목) 11:00/ 14:00

문의: 055-265-0791

●살레시오 성미유치원-전화문의 및 수시상담

문의: 055-297-6104

●파티마 어린이집-10월~11월 수시 상담(2, 3, 4세 모집)

문의: 055-276-2207

●성모유치원(합천성당)-전화문의 및 수시상담

문의: 055-931-1285

송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주일) 16:00~2024년 1월 1일(월)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송년미사, 해맞이, 신년 대축일 미사)

접수: 60객실(1~3인실), 선착순 마감

계좌: 농협 351-0006-1186-53 (재)마산교구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신청 및 문의: 055-221-1891

10.29 참사 1주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미사

일시: 10월 23일(월) 19:00

장소: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주례 및 강론: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주최: 천주교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문의: 055-249-7168, 010-2759-4178

성체신심세미나

가톨릭 신앙의 핵심인 성체성사에 대한 이해와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돕기 위해 교구 성령새신봉사
회에서 성체신심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신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0월 23일(월)~12월 11일(월) 매주 월요일
19:00~22:00-8주간

장소: 중앙동성당

강사: 이병주(사문) 신부/ 이준중(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황미란(로즈마리) 수녀/ 마진우(요셉) 신부/

장훈철(바오로) 신부/ 박상운(토마스) 신부/

황병석(파스칼) 신부/ 최봉근(디도) 선교사

문의: 교구 성령새신봉사회 010-5247-9900

푸른군대 성모신심피정

일시: 10월 31일(화) 09:30/ 미사-15:00

장소: 월영성당

내용: 1강의- 최영철(알폰소) 신부,

2강의- 최태준(필립보) 신부

주관: 파티마제계사도직푸른군대

문의: 교구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교구 진주시구 정찬문화창단 제3회 연주회

일시: 11월 10일(금) 19:30

장소: 진주시 문산읍 해방아트홀(옛 진양고 자리)

연주곡: '슈베르트 미사곡 사장조' 외 성가 및 일반곡

입장료: 무료

·단장-장성조 바오로, ·지휘-이승엽 야고보,

·반주-윤정은, ·양상블-K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17차 약혼자 주말' 안내

일시: 11월 10일(금) 19:30~12일(주일) 16:00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결혼 3년 미만의 신혼부부

신청: 10월 27일(금)까지(선착순)

교육비: 1인당 14만 원(부부당 28만 원)

계좌: 경남 207-0135-2973-03 (재)마산교구

접수 및 문의: 본당 사무실 또는 가정사무부 055-249-7023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0월 23일(월) 19:00	중앙동성당	성체신심은 무엇인가	이병주 시문 신부(부산영성의집 원장)		010-5247-9900
청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제주 3박 4일/ 전국 167곳 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 3일-30만원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3박 5일 115만원
북해도 나가사키 여타 3박 4일 115만원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지금 여기 사진관
 김찬우(사도요한) 010-8949-7901
 위치:창원 용지호수앞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제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50ml, 힐데 스킨 100ml, 힐데 바디 크림 100ml, 힐데 샴푸 200ml, 힐데 크림 50ml, 힐데 크림 15ml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11월 4일 출발 아말피&시칠리아 트레킹 순례 10박 11일-690만원
 ■11월 27일 출발 이스라엘&요르단 순례 10박 11일-495만원

bora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our.co.kr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제17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심사 결과

제17회 가톨릭문학 신인상 심사가 10월 11일 교구청 3층 꾸리아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각 부문별 응모는 시 13명 98편, 수필 9명 16편, 소설 3명 3편, 동화 4명 4편이었다. 당선자는 아래와 같으며 시상식은 12월 9일 가톨릭문인회 감사 미사 및 정기총회에서 함께 진행된다.

- 시부문 당선: 함안본당 윤혁재 레오 <다구리> 외 1편
- 소설·동화부문 당선: 산청본당 하해영 마리아
동화 <아름다운 나라에는>
- 수필부문 가작: 월영본당 손신기 안드레아 <에덴동산>



심사평

시부문은 98편의 응모작 중 예심에서 시 형식만 갖춘 줄글, 인터넷상에 떠도는 좋은 글, 가톨릭 신앙이 빠진 글을 제외했다.

이재복, 이금희, 윤혁재, 장혜숙 4명의 작품이 본심에 올랐다. 최종심에 오른 윤혁재, 장혜숙은 시적 기량에 있어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였다. 장혜숙의 시는 맑고, 윤혁재는 능숙한 시어를 사용했다. 고심 끝에 가톨릭 신앙이 좀 더 녹아든 시를 뽑기로 하여 윤혁재 <다구리> 외 1편을 당선작으로 뽑는다.

소설·동화부문에는 소설 3편, 동화 4편이 응모했다.

소설 3편은 모두 소설적 형상화가 부족하였다. 삶에서 겪었음직한 이야기를 여과 없이, 뉘드리하듯이 썼다. 분량만 많다고 소설이라 할 수가 없다.

그에 비하면 동화 4편은 조금씩 아쉬운 점이 있으나 고루 실력을 갖춘 글이었다. 그중에서 하해영의 동화 <아름다운 나라에는>을 당선작으로 선택했다. 이 동화는 상징성이 뛰어나면서 흥미롭다. 은빛호랑이와 황소를 내세워 세태를 풍자하며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하게 만든다. 내놓고 가르치려는 문장을 쓰지 않고도 복음의 정신을 담았다. 매끄러운 문장과 흐름이 돋보였다.

수필부문에는 9인 16편의 작품이 들어왔다. 1편씩만 보낸 것은 요건을 채우지 않아 심사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응모작들은 수필이라기보다는 생활문이나 신앙 수기 같은 글이 많았다. 문학상이므로 체험한 생활을 문학으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냥 열성만 보인 것이 매우 아쉬웠다.

손신기의 <에덴동산>을 가작으로 선택했다. 당선작에 미치지 못하나 이후 수필 수련을 통해 발전할 가능성을 보고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신앙의 자세는 갖추고 있기에, 소재에 비추어 주제를 서술하는 섬세함이나 문장을 간결하게 구사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 심사위원장- 주용민 리노 신부

▶ 심사위원- 도경희 스텔라 시인, 문옥영 테오도라 시인, 유희선 가타리나 시인, 유시연 레아 소설가, 이준호 라파엘 수필가, 조정자 이사벨라 수필가, 황광지 가타리나 수필가



사울과 사무엘의 갈등 1(1사무엘 13~14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광주가톨릭대학교

사울을 책망하는 사무엘

존 싱클레턴 코플리 John Singleton Copley

출처: 굿뉴스good news



사울은 서른 살에 임금이 되었고, 국가의 방위를 위해 상비군 삼천 명을 두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이천 명은 미크마스와 베텔 산악 지방에 주둔하고, 그의 아들 요나탄이 이끄는 천 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 주둔하였습니다. 사무엘기 상권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인들의 싸움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로 13장은 사울이 사무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지도자로서 실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14장은 사울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자기 아들 요나탄보다 못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과 필리스티아군 사이의 전면전은 요나탄이 계바에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를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듯합니다(13:4, 14:1-15 참조).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 소집령을 내려 길갈로 모이게 하였고, 필리스티아인들은 미크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고, 병거는 삼천이요 기마는 육천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 굴이나 바위틈 등으로 몸을 숨겼고, 어떤 이들은

요르단을 건너 가드와 길앗 지방으로 피난하였습니다. 길갈에 주둔한 사울의 군사들 역시 모두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10:8에서 사울에게 길갈로 가서 이레 동안 그를 기다리라고 말하였습니다. 군사들은 계속해서 흩어지는데 이렛날에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울은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칩니다. 하느님의 도움을 얻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 하느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가 하느님께 순종하였다면 하느님께서 그의 왕국을 영원히 굳게 해 주셨을 터인데, 그가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왕권은 다른 이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이 말은 임금의 으뜸가는 직무가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베냐민 땅 기브아로 올라가자 사울의 군대도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남아있는 군사들의 수는 겨우 육백 명에 불과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군은 아직 철을 다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탄을 제외하면 아무도 칼이나 창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군사력으로도 이스라엘군은 필리스티아인들과 싸워 승리합니다. 이 승리는 요나탄의 용맹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요나탄은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자기 무기병과 함께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요나탄은 하느님의 승리는 군사들의 수와 상관없이 올 수 있음을 확신하고, 무기병과 함께 필리스티아인들의 전초 부대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적군이 그들을 우습게 여기며 올라와 보라고 말하자 요나탄은 주님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넘겨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그곳으로 올라가 적군을 닥치는 대로 쳐 죽입니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의 군대에 공포가 퍼져나갔고, 혼란에 빠진 그들은 제 편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를 본 사울의 군대는 도망가는 필리스티아인들을 추격하였습니다. 사울은 이날 원수를 갚기 전에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받는다라는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지 못했던 요나탄은 숲에서 벌집을 발견하고 꿀을 짚어 먹고 기운을 차렸습니다. 저주가 두려워 꿀을 보고도 먹지 못하였던 군사들은 요나탄에게 사울의 맹세를 알려주었고, 요나탄은 사울의 선부른 맹세가 군사들을 더욱 지치게 만들었다고 한탄하였습니다. 결국 허기에 지친 군사들은 전리품으로 얻은 소와 양을 맨땅에서 잡아 고기를 피째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계속해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추격하길 원했던 사울은 사제의 제안에 따라 하느님의 뜻을 물었으나 하느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자 그 원인을 밝히고자 제비뽑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원인은 요나탄이 사울의 맹세를 어긴 탓임이 드러났습니다. 사울은 요나탄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군사들의 만류로 요나탄은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결국 사울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고 기브아로 올라가 왕권을 다져나갔습니다.